

플라스틱 차이나: 플라스틱 세상의 공범자들

[글] 송미경 연구원 meekyong@si.re.kr
서울연구원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에서 꿈을 찾는 사람들

올해 4월, 재활용 업계에서 비닐 수거를 거부한 사건을 계기로 새삼 주목을 받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다. 우리에게 ‘플라스틱 차이나(Plastic China)’라는 영어 제목으로 더 많이 알려진 이 영화는(원제는 ‘소료 왕국(塑料王國)’으로, ‘소료’란 플라스틱을 뜻함) 해외

에서 수입된 쓰레기로 생계를 유지하는 중국 하층민의 삶을 통해 중국 재활용 산업의 실태를 세상에 알렸다.

카메라에 담긴 폐플라스틱 재처리 종사자들의 18개월간의 일상은 급격한 중국 자본주의화의 실상과 폐해의 단면을 노출하고 있다. 이 영화를 통해 영화감독 왕지우리앙은 경제 성장의 말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림1 플라스틱 속에서 살아가는 이지와와 그녀의 갓난쟁이 동생



자료 <https://www.plasticchina.org>

그림2 쓰레기 더미 옆에서 식사하는 장면



자료 <https://www.plasticchina.org>

실상을 통해 지구촌 사람들이 다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쓰레기’ 문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 영화는 병아리가 알을 까고 나오듯 플라스틱 더미 사이를 부스럭부스럭 헤치고 나타나는 한 소년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항구에 하적된 ‘COSCO’ 컨테이너가 트럭에 실려 북적이는 시장을 지나 작은 농촌 마을로 향한다. 비포장도로 먼지가 뿌영게 올라 오고 시장통에서 소녀 이지에(Yi Jie)가 카메라를 응시한다. 뒤이어 한 남자가 오토바이에 쓰레기 더미를 가득 실은 채 고즈넉한 농촌마을의 집으로 들어간다. 그는 작은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 쿤(Kun)이다. 첫 장면에 등장한 소년은 이지에의 남동생(아쯔)이다.

이지에의 아버지 펑(Peng)은 고향을 떠나와 산둥성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처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말이 좋아 ‘공장’이지 가내수공업이다. 집 앞에는 플라스틱과 쓰레기가 쌓여 있고, 그 옆에 판잣집 같은 플

라스틱 처리 공장과 이지에의 집이 있다. 그녀와 4명의 동생들은 이곳에서 살아간다.

이지에 가족의 삶은 그야말로 플라스틱에 둘러싸여 있다. 이들에게 플라스틱은 단지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수단이다. 밥을 짓기 위한 땀감으로 사용되고, 추운 겨울에는 벽의 단열재로 쓰인다. 플라스틱을 씻는 물로 그들은 세수하고 머리를 감고, 아이들은 강가에서 건져온 죽은 물고기를 이 물에 씻어서 튀겨먹는다.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 사이를 뛰어다니며 노는 두 아이에게 이곳은 호기심을 채워주는 신기한 놀이터다. 남동생 아쯔는 버려진 병원용 장갑을 풍선 삼아 놀고 주사기로 물을 담아 먹는다. 어떤 세균이 묻어 있을지, 감염되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천진난한 아이들에게는 그저 새로운 장난감이자 세상을 배우는 창구이다. 종종 이 쓰레기 더미에서 포장지 뜯기지 않은 ‘새것’이 발견될 때면 하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행복해한다. 새 독일산 유심 칩을

그림3 쿤이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하는 장면



자료 <https://www.plasticchina.org>

발견한 아픈 신이 났고, 한국산 새 화장품을 발견한 쿤은 아내를 기쁘게 해주었다.

어른들은 하루 종일 맨 손으로 플라스틱을 선별한다. 땀의 아내는 임신 중에도 플라스틱에 둘러싸여 일을 하다가 마당 한 구석에서 출산해야 했다. 공장 사장인 쿤은 두 가족이 열심히 선별하여 씻어놓은 플라스틱을 녹여 원재료로 만든다. 특별한 장비도 없이 맨 몸으로 고열 작업을 하다가 아들이 가져다준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고단함을 씻어낸다. 지붕 위로는 플라스틱을 태운 시커먼 매연이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재활용 공장의 주인인 쿤은 학력도 있고 성실하며 성공에 대한 열망을 지닌 사람이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그의 목표는 우리와 다를 바 없이 평범하다. 자식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물려주고자 하는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현실에서 그의 노력은 허망하다. 플라스틱 원재료가 제 값을 받지 못해 세금

과 생활비 벌기에 급급한 형편이다. 폐플라스틱 쓰레기를 사들이는 비용조차 벌지 못할 때도 있어 아들의 학교 교육비를 마련하기도 힘에 겹친다. 쿤의 몸에는 알 수 없는 혹이 3개 있지만 치료비가 무서워 병원에 가지 못한다. 이지에의 소망은 고향으로 돌아가 학교에 다니는 것이다. 하지만 소녀의 미래는 어둡다. 아버지는 돈을 벌면 고향으로 돌아가 학교에 보내주기로 약속했지만 5년 동안 한 푼도 모으지 못했다.

쿤의 공장에서 땀의 가족이 다함께 일해서 버는 돈은 하루에 20~30위안(약 5,000원)이다. 하지만 고된 삶을 견디기 힘든 땀은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술을 마신다. 이들의 가난은 극복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이고, 삶의 터전은 점점 오염되어 불모의 땅으로 변해가고,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은 대책 없이 자라고 있다. 자신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두 가족은 무지하거나 무기력하다.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황폐해진 마을

‘플라스틱 차이나’의 배경인 산둥성 마을 주민 대부분은 1980년대부터 30년 동안 폐플라스틱을 처리하는 일에 종사해왔다. 영화가 촬영되던 2014년 당시 이 지역에는 쿤의 공장과 다름없는 소규모의 재활용 공장이 약 5,000개 있었다. 이들이 처리하는 폐플라스틱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수입된 것으로, 이 공장들에서 분류되고 가열 처리하여 만들어진 펠릿 형태의 원재료는 다시 장난감, 옷, 포장재 등으로 제작되어 수출된다.

왕지우리앙 감독이 수입 폐기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의 첫 영화 ‘쓰레기로 포위된 도시, 베이징(Beijing Besieged by Waste)’¹을 찍은 뒤 차기작을 준비할 때였다. 그는 중국의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 선진국의 재활용 처리 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재활용센터를 방문했는데, 그곳의 쓰레기 일부가 중국으로 수출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이후 왕지우리앙 감독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약 3년여 간 폐플라스틱의 경로를 추적했다.

중국 폐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의 문제점은 유튜브에 소개된 20분짜리 온라인 버전 영상에서 구체화되었다.² 폐플라스틱이 수입되는 과정과 처리 방식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영상은 캘리포니아의 한 재활용센터 관리자 다니엘 마더(Danial Mather)와의 인터뷰로 시작된다. 인터뷰에서 그는 중국이 해외에서 쓰레기를 수입해왔음을 증언했다. 이후 컨테이너벨트를 따라 쓰레기가 빠르게 분류되는 장면이 이어진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매립지로 보내지고 재활용 가능한 품목은 다시 유리, 플라스틱, 금속,

종이로 분류된다. 공장 매니저는 쓰레기의 약 80%가 재활용된다면서 자부심을 드러낸다. 분류된 쓰레기 중에서 종이와 플라스틱은 세척되거나 분해되지 않은 채 컨테이너에 차곡차곡 실린다. 이 컨테이너는 중국 항구에서 하적되어 산둥성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들이 밀집한 마을로 수송, 각 공장으로 팔려나간다. 이 과정에서 선별이 잘된 플라스틱은 대형 재활용 공장으로 팔려가고, 플라스틱 특성별로 세분류가 안 되었거나 별도 수작업이 요구되는 플라스틱은 주로 마을의 소규모 공장으로 분배된다.

감독은 중국어, 영어, 독일어, 일본어 등 여러 언어가 인쇄된 다양한색의 쓰레기를 보여준다. 성실하고 연륜이 깊은 듯한 공장장 유(Mr. Yu)는 플라스틱을 불에 태워 보이면서 타는 형태에 따라 성질을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들이 복잡한 분류, 분해(잘라짐), 세척, 가열 등을 걸치면서 원재료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5,000여 개의 소규모 재활용 공장이 밀집해 있는 마을 환경은 황폐하기 짝이 없다. 한때 아름다운 고장이었다고 하나 현재는 강변 곳곳마다 쓰레기가 쌓여 있고, 폐플라스틱을 선별하고 가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과되지 않은 매연은 그대로 농작물에게 영향을 끼친다. 땅 주인은 불쾌한 냄새와 연기에는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정작 본인이 일구는 작물에는 이상이 없다며 현실을 외면한다. 양들은 풀과 쓰레기를 같이 먹어서 점점 말라가며, 도축하면 소화되지 않은 플라스틱과 비닐이 뱃속에 가득하다. 정수 처리 과정이 생략된 채 흘러버린 폐수로 인해 강물 위에는 폐사한 물고기가 동동 떠다니고,

1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약 5년간 베이징 주변에 약 460개 매립지를 돌아다니면서 중국 심각한 쓰레기 실태를 담은 76분짜리 다큐멘터리로, 이 영화를 통해 왕지우리앙은 중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감독이자 환경운동가가 되었다.

2 <https://www.youtube.com/watch?v=ooRVhRt1p54>

지하수까지 오염되어 마을 주민들은 모두 식수와 생활수를 사는 데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마을 주민들은 아름다웠던 고향의 모습이 이제는 과거의 기억이 되었음을 슬퍼하면서도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토로한다. 젊은이들도 몸의 이상 반응을 느끼고 있지만 대안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런 환경에서 성장하는 어린이들의 비위생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상은 매우 비극적이다. 점점 살 수 없는 땅이 되어가는 사실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으면서 대책 마련의 의지가 없다고 말하는 한 주민은 삶을 비판하고 있다.

세계공장으로 성장해온 중국의 뒷모습

1980년대 개방 이후 중국은 제조업 발전을 동력으로 하여 빠르게 성장했다. 각종 제조업에 필요한 원자재나 부자재를 자체 생산과 기술력으로 조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가전, 고철, 폐플라스틱 등을 수입하여 사용함으로써 다량의 자원을 저렴하게 확보하기 시작했다. 중국에 수입된 폐기물들은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지역 곳곳에 산재한 재처리 공장에서 원료로 재생되었다. 이렇듯 신규 원료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생산하는 동안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해왔다.

중국의 연간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은 1995년 약 450만 톤에서 2015년 약 4,500만 톤으로 10배가 증

가했다.³ 경제적 가치는 연간 180억 달러 규모이다.⁴ 이 가운데 폐플라스틱은 2016년 기준으로 연간 약 750만 톤으로 37억 원 규모이며 국제 폐플라스틱 전체 거래량의 약 56%를 차지한다.⁵ 1992년 처음 30만 톤을 수입한 이후 25년여 사이에 24배나 증가했다.⁶ 미신고 폐기물까지 실제 항구로 들어오는 수량은 연간 1,000만 톤에 다다를 것이라고 ‘플라스틱 차이나’ 개봉 당시 인터뷰에서 왕지우리양 감독은 추정했다.⁷ ‘정크야드 플래닛(Junkyard Planet: Travels in the Billion-Dollar Trash Trade)’의 저자 애덤 민터(Adam Minter) 역시 중국의 2차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은 대부분 가족 중심의 소규모 사업장들로 분화된 형태이며, 이들은 자신의 생산량을 정부에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보고의 혜택도 없다고 했다.⁸ 차이나 다이얼로그(China Dialog)의 펑하오(Feng Hao) 연구원은 중국에 수입된 플라스틱의 여정을 이해하기 쉽게 묘사한다.

“미국에서 버려진 플라스틱 병은 텐진항으로 들어온다. 이는 다시 베이징 근처 허베이성으로 옮겨져 분류하고 녹여져 알갱이로 만들어진다. 그 후 남쪽 도로를 타고 내려가 저장성에 도착하여 라이터 몸통으로 만들어진다. 라이터의 점화 휠은 장수성에서 삽입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하이에서 이 제품들이 포장되어 유럽 도시로 다시 수출된다.”⁹

올해 개최된 서울환경영화제에서 왕지우리양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중국 영토와 중국 사람들의 건강과

3 한국일보, 2018.4.21

4 Economist, 2017.8.3

5 Reuters, 2017.7.18

6 China dialogue, 2018.3.13

7 Yang Jing, 2016.3.2.

8 China dialogue, 2014.11.7

9 China dialogue, 2018.3.13

생명을 담보로 전 세계가 풍요를 누리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난 우리가 세계의 공장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쓰레기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 유럽, 일본, 미국,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쓰레기를 보내주면 결국 중국이 부를 얻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부라는 것은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소수의 사람이 가져갈 뿐 바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이 부가 결코 돌아가지 않는다. 쓰레기 재활용 산업이 열한 살 소녀 이지에의 삶을 바꿀 수 없다면 과연 좋은 산업인가? 계속 해야 하는가 여러분께 묻고 싶다.”¹⁰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인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중국이 환경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묵과한 탓으로 이러한 산업이 발달된 것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국제무역이 문제라 할 수 없다. 만약 중국에서 환경비용이 재활용 가격에 포함되었다면 재활용 비용은 중국이나 일본, 미국에서 같을 것이다. 중국은 환경보호에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것이다. (...) 쓰레기 산업은 재활용이란 경제적 효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경제적 불평등, 빈부격차, 환경, 교육, 여성의 권리 등 많은 문제가 내제되어 있다.”¹¹

펑하오(Feng Hao) 연구원도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원인으로 꼽는다.

“중국에서 쓰레기 무역자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쓰레기를 사서 분류하고 판다. 선진국에서 쓰레기를 처

리하는 비용이 1톤당 약 400~1,000달러라면 중국은 수출비를 포함하여 1톤당 10~40달러이다. 쓰레기 무역이 중국의 저렴한 제조 가격, 이점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부문으로 작용한 동시에 규제되지 않은 위험한 업무환경을 조장하는데 기여했다.”¹²

‘플라스틱 차이나’ 이후 중국이 걸어갈 길은?

영화 ‘플라스틱 차이나’는 중국인도 몰랐던 중국의 현실로, G2에 오른 중국의 자존심을 크게 건드렸다. 영화 개봉 당시 당국은 상영 금지 처분을 내렸지만 국제 영화제와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 중국 내부로 전파되었다. 이로써 폐쓰레기 수입과 처리에 대한 내국인 분노의 기폭제가 되었고, 결국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는 중국 내 사회운동의 여파로 중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치를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¹³ 일부 언론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이 영화를 보고 일련의 강경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영화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자 산둥성 지역의 재활용 공장은 대부분 가동을 멈추고 폐쇄되었다. 공장주들은 다른 직업 선택에 대한 유도를 받았으며 대출을 원할 경우 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기회가 주어졌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노동자와 주민들은 새 지역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일에 종사하게 되었다고 한다.¹⁴

그리고 2018년 1월 1일 중국 환경보호부는 여러 금지 조치에도 불법적 쓰레기 수입이 지속되었으며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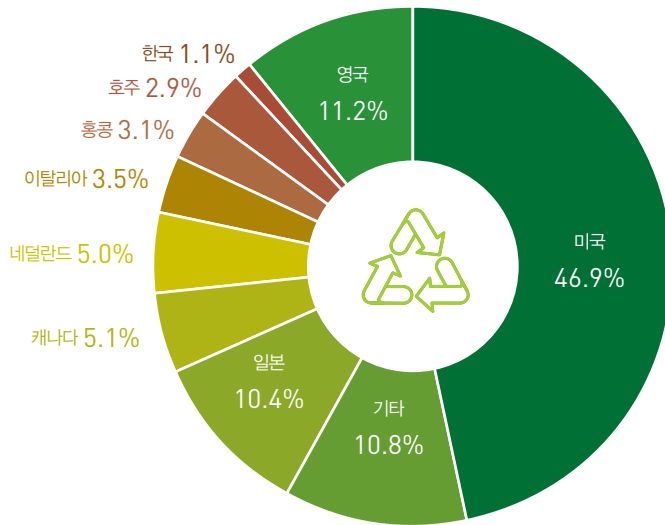
¹⁰ 오마이뉴스, 2018.5.25

¹¹ Director's statement, <https://www.plasticchina.org>

¹² China dialogue, 2018.3.13

¹³ 중앙일보, 2018.4.6.

그림4 2017년 중국 재활용 쓰레기 수입국 비중



자료 스포츠 조선 2018.4.8.

민의 건강과 중국의 환경 훼손을 막고자 폐기물의 수입 금지조치를 실행한다고 발표했다. 금지 품목에는 가정용 플라스틱, 미분류된 종이와 천을 포함하여 24종의 고체 폐기물이 포함되며, 2019년부터는 모든 종류의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기로 하되 국내에서 생산되지 못하는 품목은 제외된다. 이에 대해 팽하오는 중국 정부가 2013년 이후 폐기물 수입의 품질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불법 수입(밀수로 들어오는 쓰레기와 공식 처리시설 기준에 맞추지 못한 쓰레기)를 막고자 했으

나 해결이 되지 않자 전면적인 수입 금지 조치라는 정책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재활용품을 수출해왔던 주요 수출국인 미국, 영국, 일본 및 유럽 국가들은 단번에 중국에 빗장이 걸리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각국별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이 약 50%로 가장 높고, 영국, 일본, 캐나다 순이다. 한국도 일부 재활용 쓰레기를 수출해왔고, 업계에 의하면 비공식적 수출 비중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1 중국 고체폐기물 수입량 추이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입량(만 톤)	4,850	4,455	4,473	4,328	3,961

자료 중국 해관총서; 재인용

허핑턴포스트지는 “지난 20년간 중국은 세계의 재활용 수거통 역할을 했다”면서 “2016년 미국은 페플라스틱, 비닐을 포함해 폐종이, 고철 등 1,600만 톤을 수출했고 52억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올림픽 기준의 수영장 1만 개 이상을 채울 수 있는 양”¹⁵이라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는 영국이 매년 페플라스틱 50만 톤을 중국에 수출해왔는데 중국의 갑작스런 전면적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영국에 비상에 걸렸다고 전했다. 영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물량이 너무 많고,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대안은 더 큰 환경문제를 유발할 뿐이며 마냥 쌓아놓기에는 양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영국재활용협회의 사이먼 엘린 회장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폐지의 55%, 플라스틱 쓰레기의 25% 이상을 중국으로 보내왔기에 충격이 크다. 단

기적으로 해결할 아이디어가 없다”고 말했다.¹⁶ 아일랜드, 독일, 캐나다 곳곳에서도 비슷한 양상이라고 한다.¹⁷ 이 국가들은 WTO를 통해 중국에 항의하고 동남아 국가들이나 아프리카 등 재활용 쓰레기를 대신 처리해줄 국가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중국과 달리 동남아나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재활용 처리산업이 미비하여 벌써부터 더 큰 환경오염과 인권 침해가 예견되고 있다.

중국에서 쓰레기 수입에 따른 환경 및 사회문제가 대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팽하오 연구원은 2015년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광둥성 전자재활용 센터 사태를 예로 들었다. 수년간 그 지역의 재활용업자들은 잔인하고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밀수입된 전자 쓰레기를 분해해왔으며, 그 결과 노동자들의 건

그림5 광둥성 구이유 지역의 전자제품 쓰레기장



자료 Baselactionnetwork, CC by 2.0; Eco-business, 2018.3.16. 재인용

15 중앙일보, 쓰레기통 담은 중국, 시작은 영화 '소로왕국' 쇼크, 2018.4.6

16 중앙일보, 2018.1.2

17 Steemit, 2018.4

강 악화, 주변의 공기·물·토지 오염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오염 현황에 대한 폭 넓은 조사가 추진되면서 재활용 처리업체들이 폐쇄된 사례였다.¹⁸

하지만 수입 금지 조치로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자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처리가 바로 그것이다. 중국에서 연간 생산하는 신규 플라스틱 자원은 2013년 기준으로 5,836톤이다.¹⁹ 중앙일보는 연간 중국의 플라스틱 소비량이 연간 약 1억 톤에 달하며, 이중 약 10%가 폐기된다고 해도 연간 1,000톤의 폐플라스틱이 발생한다고 분석한다.²⁰ 하지만 현재는 재활용 쓰레기 분리와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내 발생분만으로는 수요를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실 중국에서 미처리된 채 해양으로 버려지는 플라스틱 규모만도 2010년 기준 연간 132만 ~ 353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²¹ ‘미국의소리(Voice of America, VOA)’도 중국은 급증하는 자국 내 쓰레기 처리 문제와의 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이라 전한 바 있다.

중국 내 재활용업체가 폐기물을 수입해왔던 중대한 이유 중 하나도 국내 재활용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대형 폐기물 재활용업체들은 상대적으로 품질 좋은 수입폐기물을 주로 처리하고, 분류되지 않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 내 폐기물은 비공식 부문의 소규모 재활용처리 시설로 보내졌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해외의 불법 폐기물까지 스며든 것이다.

현재로서는 해외의 폐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해도 중국의 산업 여건이 곧바로 개선되기는 힘들 것이며, 제조업에도 큰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견된다. ‘그린

피스 이스트 아시아(GreenPeace East Asia)’는 당장 해외 수입물량을 모두 국내 물량으로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신문 발행용 제지를 비롯하여 여러 제조업 분야에서 자원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기대와 예측은 다르다. 수입 금지로 폐기물 자원이 적어지면 수입폐기물 가격이 높아지고, 대형 재활용 산업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국내 폐기물을 활용하는 대안을 마련한다면 장기적으로 중국 재활용 산업 분야의 개혁을 이룰 수 있으며, 더불어 중국의 재활용과 재사용율도 제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계에 경각심을 일깨운 '플라스틱 차이나'

영화 ‘플라스틱 차이나’에서 보여준 두 가족의 이야기는 각종 국제영화제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대부분의 세계 시민들은 재활용 쓰레기가 국제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에 무지했다. 무역 거래의 당사자들도 중국의 플라스틱 재활용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재활용되고 있다고 믿었던 쓰레기가 타국의 마을들을 파괴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개봉 당시 이 영화는 중국의 치부를 세상에 폭로한 내부고발자 입장이었지만, 당국이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한 지금은 그 당위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셈이 되었다. 언론들은 이 영화를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와 연결시켜 소개하며 “이 영화는 중국의 시민운동을 일으켰고, 폐기물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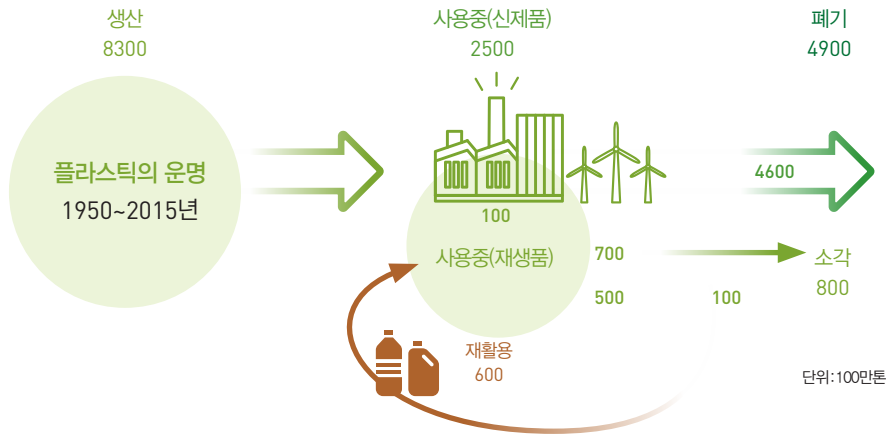
18 China dialogue, 2018.3.13

19 Plastic Insight.com

20 중앙일보,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 중단하자 美 美 난리난 이유, 2018.1.2

21 한겨레, 2015.2.13

그림6 1950~2015년까지 플라스틱의 순환



자료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한겨레, 2017.7.20 재인용

금지 조치는 더 이상 중국이 세계의 쓰레기장이 될 의향이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했다. 사실 여부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영화가 전 세계의 재활용 시스템이 변화해야 하는 단호한 명분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어두운 현실은 바로 플라스틱 차이나가 보여주는 폐플라스틱 처리 문제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세계의 플라스틱의 80% 가까이는 재활용조차 안되고 버려지고 있다.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전자 쓰레기 등 각종 유해한 쓰레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방치되며 환경파괴와 인권유린의 주범이 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16년 기준 연간 3억 3,500만 톤 정도이다.²² 이 중 세계 무역으로 거래되는 양은 전체 생산량의 5% 정도이다. 그 중 중

국이 약 50%를 처리해왔으니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의 2.5% 정도가 전 세계에 미친 파장이 이 정도였던 것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1950~2015년 66년 동안 83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이 중 63억 톤이 폐기되었는데 재활용된 양은 9%, 소각된 양은 12%이며 나머지 79%는 매립되거나 자연에 그대로 버려졌다고 한다. 이 연구에 의하면 앞으로 도시화가 확대되면서 2050년까지 120억 톤 매립되거나 버려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²³

이제는 자원화에 집중할 때

올해 4월 아파트 단지 재활용 수거업체들이 비닐 등 일부 재활용 수거를 거부한 사건이 사회 이슈로 부

²² Global Plastic Production from 1950 to 2016, www.statista.com

²³ 한겨레, 2017.7.20

각되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를 직접적으로는 재활용 폐기물 유가를 떨어뜨린 일련의 나비효과 현상으로 보고 있다. 물론 재활용 선별업체들은 유가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해외에서의 수입물량이 증가하는 사태까지 보태져 재활용, 소각 등 폐기물 처리 비용이 점차 높아진 것이다. 최근 경기 지역에서는 대규모의 폐기물 불법투기 및 적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조직폭력배의 개입까지 포착되고 있다고 한다.²⁴ 서울시도 폐기물 처리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맹목적 믿음이 있었다. 쓰레기를 최대한 잘 분류하여 썩지 않는 자원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 순환경제에 기여한다는 믿음이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대중이 어떻게 쓰레기를 버리고 관리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가 매립 및 소각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비중을 두었다. 이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였다. 재활용은 시장 체계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이며 이윤 창출 산업이자 거래품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그래서 재활용을 늘리고 재활용 산업 재사용 산업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하였다. 여러 수치가 말해주는 지표들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산업이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었고 이를 자랑스러워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버린 폐기물이 다시 자원화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매우 무지하다. 개개인뿐만 아니라 정부와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측면에서 ‘플라스틱 차이냐’는 우리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선두

주자로 외치던 재활용업체가 얼마나 어두운지, 위험한지,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여전히 우리에게 재활용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이참에 현재 재활용 체계의 한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폭넓은 문제의식과 대책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이 재활용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정부가 폐기물을 다시 자원화하는 과정에도 더욱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다. **(W)**

참고문헌

- 서울경제신문, [글로벌WHAT]쓰레기 더미밖에...뛰어놀 곳이 없어요, 2018.5.4
- 스포츠 조선, [카드뉴스] '세계의 쓰레기통' 거부한 중국의 속사정, 2018.4.8
- 오마이뉴스, 뚜껑 닫은 세계의 쓰레기통, "플라스틱 코리아"가 덮쳐온다, 2018.5.25
- 자원순환사회연구소, 사회폐기물 불법처리(투기) 문제발생 구조, 2018.9.5
- 중앙일보, 쓰레기통 닫은 중국, 시작은 영화 '소요왕국' 쇼크, 2018.4.6
- 중앙일보,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 중단하자 美英 난리난 이유, 2018.1.2
- 한겨레, 지금까지 플라스틱 총생산량 83억톤 대부분 쓰레기로 버려져, 2017.7.20
- 한겨레, 세계 바다는 '플라스틱 쓰레기장', 2015.2.13
- 한국일보, '쓰레기 대란'으로 확인된 중국의 또 다른 힘, 2018.4.21
- Steemit, 플라스틱과의 전쟁 (2) 중국의 반격, 2018.4
- Eco-business, Waste ban forces unlicensed recyclers to clean up act, 2018.3.16
- Economist, China tries to keep foreign rubbish out - Anti-dumping, 2017.8.3
- China dialogue, Waste ban forces unlicensed recyclers to clean up act, 2018.3.13
- China dialogue, China's plastic scap sector isn't green yet, 2014.11.7
- China dialogue, Film: How China became the world's dumping ground. 2014.1.5
- Plastic Insights, China Primary Plastic Production, 2016.3.26
- Reuters, China says it won't take any more foreign garbage, 2017.7.18
- Yang Jing, From Beijing Besieged by Waste to Plastic China: A conversation with Artist Wang JiuLiang, 2016.3.2

홈페이지

- 영화 플라스틱 차이나 공식 홈페이지 (<https://www.plasticchina.org>)
- Global Plastic Production from 1950 to 2016, www.statista.com